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2
2020 총회 소식	3
학회지 발간	3
회원동정	3
신간 소개	4
공지사항	7
회비납부	7

발행일 2021. 1.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변현태

권두언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원 여러분, 학회 소식지 권두언란을 통해 늦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우리는 흔히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지난 2020년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라는 강력한 ‘일사(一事)’가 나머지 모든 ‘다사(多事)’를 삼켜버린 느낌입니다. 코로나라는 ‘일난(一難)’으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코로나 이후’는 ‘새로운 정상(뉴노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한국러시아문학회도 처음에는 좀 허둥대기도 했지만 가을의 공동학회, 12월의 정례학술발표회를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어내기도 했다고 판단합니다. 12월 학회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더 많은 학회원들의 참여가 있기도 했습니다. 학회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더라면 2020년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2021년도 지금의 상황이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코로나를 포함한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대유행(팬데믹)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나가야 할 조건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조건이라면 우리 모두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회는 지난 30여 년 동안 쌓여온 전통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도 정례학술발표회, 학술대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획된 논문집을 완성하고, 논문상 등 업적을 기리는 활동을 할 것입니다. 비대면 활동이라는 조건에서 학회 뒤돌아자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지혜를 모으는 일도 있어야 할 듯합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일으킨 일상의 변화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세기의 전환기에 대유행했던 수많은 ‘포스트’ 담론들이야말로 얼마나 추상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학 관련자들은 물론 -가령 스페틀라나 알렉시예비치의 『세컨드핸드 타임』과 같은 책을 통해서- 포스트 소비에트가 가져온 구체적인 일상의 변화가 얼마나 과격한가를 간접 체험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정상(뉴노멀)’을 상상하는 인문학의 지분에 우리 학회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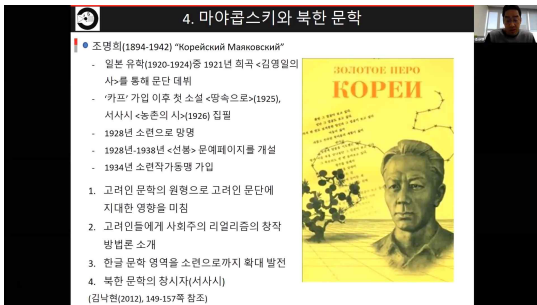
다시 한번 늦은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학회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 건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현태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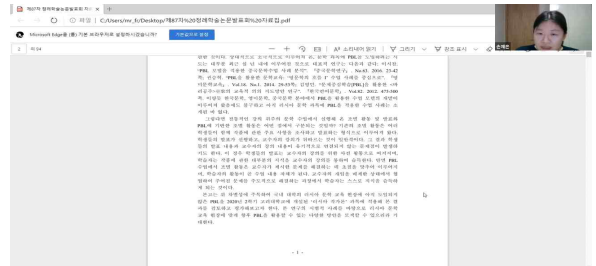
▶10월 17일 한국노어노문학회의 주관하에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을 받아 “한러 수교 30주년, 소통의 역사”를 주제로 온라인 플랫폼 ZOOM을 통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문학, 어학, 문화-통번역, 사회과학 분과로 나누어 진행된 본 학술대회에서는 총 36편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문학, 어학 및 사회과학 분과에서는 학문 후속세대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여 명이 참가한 본 발표회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지면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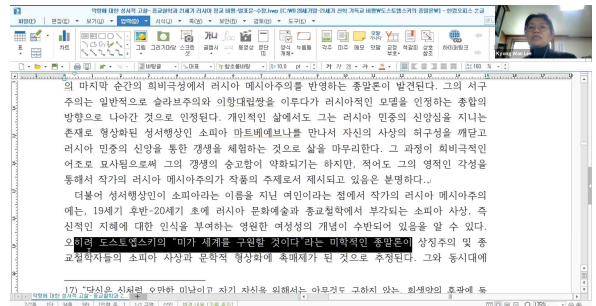
<2020년 러시아학 관련 4대 학회 공동학술대회 온라인 발표와 토론 장면>

▶12월 28일 제87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학술대회에서는 문학, 어학 및 문화분과로 나누어 문학에서는 손재은 회원(고려대)의 「러시아 문학 과목에서의 PBL: 러시아 작가론 수업 사례>」의 2개 발표, 어학에서는 이수현/정하경(서울대) 회원의 「현대러시아어 ЦТО와 ОНУ의 허사적 사용」, 문화분과에서는 김민아(삼육대) 회원의 「<공통의 장소(common place)> 번역에 대한 소고」 등 다채로운 발표가 이루어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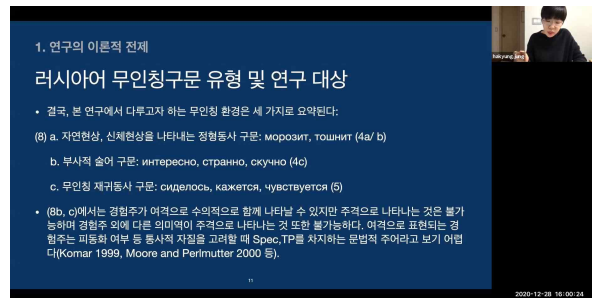
습니다.



<2020년 제87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문학 분과 발표 장면>



<2020년 제87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문학 분과 발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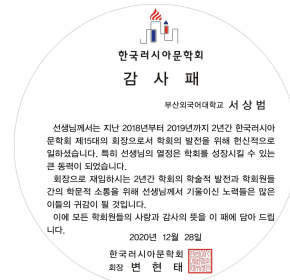
<2020년 제87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어학 분과 발표 장면>



<2020년 제87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 어학 분과 토론 장면>

2020 총회 소식

▶ 12월 28일 러시아문학회 회원총회가 열렸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의 학회 활동 전반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15대 학회장이신 서상범 전 회장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학회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회원 간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패>

학회지 발간

▶ 8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0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문화 분야의 논문 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권경준 회원(성균관대)의 [슬라브어 비교급 형태의 통시적 발달], 길윤미 회원(경북대)의 [러시아어에 반영된 투르크어와 투르크문화: 러시아 화폐용어를 중심으로]를 포함한 논문 5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1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어학 및 지역학 분야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었습니다. 김규종 회원(경북대)의 [푸쉬킨의 희곡 『보리

스 고두노프』 연구], 백용식 회원(충북대)의 [H.고골의 소설 「성탄전야」의 웃음 연구], 이영준 회원(한국학중앙연구원)의 [러시아어 동사의 논항 실현에서 피영향성 분석], 정경택 회원(경상대)의 [북캅카스 아르메이어 정체성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21년 2월 25일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2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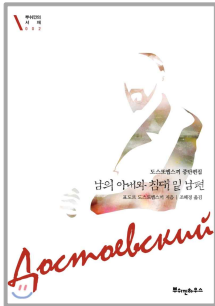
▶ 8월 24일 정보라 (연세대) 회원의 혼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결혼식과 축의금은 생략한

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신간 소개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1. 『남의 아내와 침대 밑 남편』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조혜경 옮김, 뿌쉬킨하우스, 2020년 12월 30일 출간)



도스토예프스키는 장편 소설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데뷔작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초기 중단편들에 대해서는 작품의 예술성을 논하기조차 꺼리는 것이 비평계의 관례처럼 굳어져 왔다. 사실 데뷔작 이후 작가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창작의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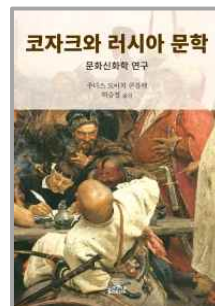
기를 겪으며 글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가는 다양한 소재와 형식의 소설을 과감하게 실험했다. 『남의 아내와 침대 밑 남편』의 주인공은 의치증이 있는 남편이다. 그는 고상하고 교양있는 신사인 척하지만 사실 그는 질투심 많은 소심한 남자일 뿐이다. 작가는 정부를 기다리는 젊은 이와와 만남, 남의 집 침대 밑에 숨게 된 상황 등 주인공에게 일어나는 황당한 사건들을 통해 질투, 불륜이라는 소재를 풍자하고 있다.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은 두 주인공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된 소설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성공 이후 『분신』과 『쁘로하르친씨』에 대한 혹평 이후 작가는 「아홉 통의 편지로 된 소설」을 씀으로써 다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편지 형식의 소설을 통한 성공을 시도했다. 이름에서 나타나듯 두 주인공은 서로에게 분신 같은 존재다. 편지는 주인공들이 서로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보이는 의사소통의 부재는 아이러니하며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보이는 모습이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코미디 같은 상황을 편지 아홉 통만으로 풀어냈으며, 이러한 구성과 결말에서 우리는 진지한 듯 우스꽝스러운 작가의 유머코드를 느낄 수 있다.

「꼬마 영웅」은 시골의 전원적이고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꼬마 영웅」의 아름다운 배려심과 사랑하는 여인을 끝까지 지키려는 중세 기사다운 풍모, 그의 뜻밖한 사랑이 묻어나 있다. 작가는 모스크바 근교의 영지에서 가족들과 전원생활을 누린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들을 「꼬마 영웅」에 드러냈다. 낭만적으로 묘사되는 배경 때문에 너무 일찍 어른들의 사랑을 알아버린 꼬마 영웅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진다.

「크리스마스 파티와 결혼식」에서 돈에 대한 욕심으로 어린 소녀에게 흑심을 품은 율리안 마스파꼬비치, 아이들을 부모의 부에 따라 차별하는 상인 부부의 모습은 크리스마스 파티라는 배경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진다. 작가는 이름 모를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이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율리안 마스파꼬비치의 탐욕과 속물근성은 도스토예프스키 소설들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작가의 후기 소설에 등장하는 「탐욕스런 비열한」의 원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보제공 : YES24)

2. 『코자크와 러시아 문학』 (주디스 도이치 콘블랫 지음, 허승철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11월 30일 출간)



이 책은 푸시킨에서 시작하여 고골, 톨스토이, 바벨, 미래주의 시인들, 솔로호프,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들, 나보코프에 이르는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코자크 주제를 문학 비평적 입장에서 정리한 학술서 이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

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독자나 학생들도 어렵지 않게 소화할 수 있는 읽을거리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원문에는 없지만 그림과 사진 이미지를 책 중간에 첨부하였다.

코자크를 신화화하는 데 기여한 모순과 역설인 “압제와 자유”의 주제는 소련 시대와 소련 붕괴 이후에도 문학적, 사회적 합의가 감소되지 않았다고 본다. 러시아 역사에서 전제 권력과 압제가 강화될수록 자유에 대한 민중의 갈망이 커졌고, 작가들이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른 어느 역사 현상보다 “코자크”를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리적 공간은 정복되고 변경은 사라졌지만, 숨 막히는 사회 질서와 관습의 경계에 갇혀 있는 현대인들은 아직도 코자크 신화에 열광할 수 있다. (정보제공 : 교보문고)

3. 『크림반도 견문록 1, 2』(예브게니 마르코프 지음, 허승철 옮김, 나남, 2020년 11월 30일 출간)



크림반도는 크림전쟁, 알타회담, 크림사태 등으로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이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크림반도에 가 본 사람이 적고, 크림반도에 관심 있는 대중을 위한 서적도 거의 전무하다. 이런 상황에서 크림반도에 대한 가장 훌륭한 저작으로 평가받는 《크림반도 견문

록》의 국내 출간은 큰 의미를 갖는다. “대중적 독자를 위한 유일한 크림 관련 저술”이자 “크림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며 깊이 있는 내용의 책”이라는 찬사를 받은 《크림반도 견문록》은 크림의 자연, 문화, 역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873년 처음 출간된 후 150여 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처럼 광범위한 주제를 유려한 문장으로 서술한 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역자 허승철 고려대 교수는 “크림과 흑해지역에 대한 기초자료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 독자들은 이 책에서 크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19세기 후반의 러시아 상황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며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크림과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대사를 역임하며 여러 차례 크림반도를 방문한 역자는 크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크림반도 견

문록》의 영어판, 일어판, 독일어판이 나오기 전에 한국어판을 먼저 펴냈다.

러시아 기행문학 세계로의 초대

《크림반도 견문록》의 가장 큰 장점은 러시아 기행문학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여행작가이자 교육행정가인 저자 마르코프는 러시아 본토와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크림반도 전역을 여행하면서 독특한 자연, 문화, 역사를 유려한 필치로 그려냈다. “크림의 스텝, 산, 바다, 고대 전설과 유적,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여러 지역을 스케치북에 그리는 화가처럼 담았다”는 저자의 말처럼 이 작품은 크림의 풍광과 문화를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고대부터 크림전쟁이 일어난 19세기까지 크림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크림타타르인을 포함해 크림반도를 거처간 여러 민족들의 애환도 가슴에 와닿게 묘사했다. 사색적이며 다소 아이러니한 저자의 어조도 이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이다. 저자는 “나의 책을 크림의 초상이라고 한다면, 단지 크림의 영원히 변함없는 특징들의, 내부 영혼의 초상”이라고 말하며, 짧은 인생을 넘어 유구한 역사로, 유한한 문명을 넘어 영원한 자연으로 사유의 여행을 떠난다.

생생한 묘사, 따뜻한 인간애, 깊이 있는 통찰이 빛나는 《크림반도 견문록》은 한국 독자들을 러시아 기행문학의 신세계로 초대할 것이다. (정보제공 : 교보문고)

4. 『19세기 러시아 문학 산책』(김연경 지음, 민음사, 2020년 8월 14일 출간)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강의하는 소설가 김연경의 『19세기 러시아 문학 산책』이 민음사에서 출간되었다. 러시아 문학뿐 아니라 문학 전반의 이해력과 통찰력을 갖추고 모든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글쓰기 활동을 활발

히 펼치고 있는 저자의 첫 연구서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정수라 할 러시아 근대 소설의 주요 작품들로, 『스페이드 여왕』, 『페테르부르크 이야기』,

『우리 시대의 영웅』, 『아버지와 아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안나 카레니나』, 체호프의 단편 등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소설들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 작품들에 나타나는 근대와 함께 탄생한 인간-개인의 속물성에 주목하며 특유의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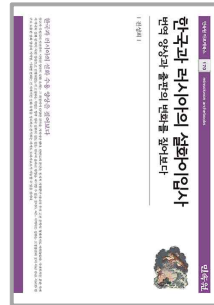
이 책의 토대는 지난 15여 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러시아문학을 강의하며 학술지에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이다. 그러나 연구서이면서도 학부생을 위한 교과서적 성격을 갖도록, 또 러시아문학을 사랑하는 지적인 독자도 흥미를 갖도록 작가의 전기를 소개하고 전체 형식과 문체를 대폭 수정했다. 학술 정보와 전문 자료가 필요한 독자를 위해 책 끝에 참고 문헌을 붙였다.

이 책은 푸시킨, 고골, 레르몬토프, 투르게네프,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체호프 등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대표 작가, 대표 작품 속으로 우리를 이끈다. 이들을 아우르는 핵심어는 근대, 개인, 소설, 속물성이다. 앞의 세 요소는 르네상스, 특히 셰르반테스-돈키호테와 셰익스피어-햄릿 이래 형성된 서유럽의 19세기 문학과 유사하다. 문제는 네 번째 항목이다. 근대와 함께 탄생한 인간-개인은 ‘주인공-영웅’이든 ‘대중-단역’이든 이 속물성-속악을 피해갈 수 없다.

유라시아 대륙에 자리한 러시아는 아시아에 등을 돌린 채 유럽을 지향해 왔다. 포르트 대제 시절부터 본격화된 이 모방 욕망은 그들의 속물성의 기저에 깔려 있다. 그러나 19세기 러시아 문학이 묘파한 속물성은 훨씬 더 다층적이다. 그것은 특정 정체(政體) 등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문제다. 그렇기에 인간과 세계의 대립 구도는 더 복잡한 희비극이 되고, 여기에는 또 다른 개념인 신-구원이 요청된다. 고골과 도스토예프스키가 대표적인 예다. 등단부터 생활 밀착형 소설을 쓴 톨스토이는 노년에 이르러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에 몰입한다. 세기말 작가로서 체호프의 문학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시작된다. 그는 우리가 모두 ‘작은 인간’이며 이 ‘작음’은 인간 본연의 속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체호프는 19세기를 마감하고 20세기를 여는 작가가 된다.-(「서문」(정보제공: 교보문고))

5. 『한국과 러시아의 설화이입사』(전성희 지음, 민속원, 2020년 8월 31일 출간)



한국과 러시아의 설화 수용 양상을 짚어보다

국교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양국의 설화 소개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굴곡을 거쳐야만 했다. 한반도의 분단은 정치적 지형뿐만 아니라 우리 고전 문학의 형태까지도 바뀌어왔다.

국내외적인 혼란 속에서 각국의 설화 번역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 고찰하는 작업은 향후 양국 설화의 심도 있는 연구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설화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닌 만큼, 이러한 연구로 도출된 설화 양상의 지역별, 시대별 변화는 전 세계적인 설화 유형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에도 토대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설화 번역의 주체와 의도의 중요성

수많은 세월을 거쳐 이야기 전승 공동체의 세계관과 인생관을 담고 있는 설화는 번역의 주체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 민족의 풍부한 문학적 상상력과 삶의 지혜가 누군가의 의도적 편취로 변형되어 다른 민족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번역물들이 다른 민족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잘못된 잣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봄이 필요하다. 더불어, 구비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적층성(積層性)이니만큼, 다른 나라의 설화를 번역하는 작업은 단순한 언어적 변환만이 그 목적일 수는 없으며, 변화의 과정까지 짚어볼 수 있어야 한다. (정보제공: 알라딘)

공지사항

▶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2집, 제73집 투고 안내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72집은 2021년 2월 25일 발간예정입니다. 제73집은 4월 15일에 투고가 마감되어 5월 25일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 논문 투고규정

- 가. 논문게재를 희망하는 회원은 온라인 사이트 잼스(<https://russian.jams.or.kr>)를 통해 논문을 제출한다.
- 나. 투고 논문은 한국어, 러시아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다.
- 다.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2004’ 이상으로 작성하되, 지정된 편집용지 기준 20장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 라. 모든 원고에는 편집용지 기준 1장 내외의 외국어(본문과 다른 언어) 초록과 8개 단어 내외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word)를 첨부한다.
- 마. 원고 작성의 세부사항은 ‘논문작성 요령’을 따른다.
- 바.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은 반드시 투고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사. 공동집필 논문의 경우 제 1저자(연결 저자 포함)와 공동저자를 구분한다.
- 아. 특별 청탁 논문을 제외한 모든 논문의 필자는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는 논문 투고 시 심사료(6만원)를 지불하며, 논문이 채택된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한다(전임: 20만원, 전임 연구비수혜논문: 30만원, 비전임 게재료 없음, 비전임 연구비수혜논문: 20만원). 심사료 및 게재료는 차후 조정될 수 있다.

자. 타 학술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가 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차. 본인 및 타인의 연구물을 표절한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카. 본 학회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의 저자는 학회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동시에 저작권에 대해 학회의 이용을 허락한다.

*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3333-14-4155946, 예금주: 이선영

▶ <평생 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

존경하는 학회원 여러분!

우리 학회의 지속가능성을 공고히 하고 학회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된 회비납부 현황을 참조해주시십시오.

회비납부

▶ 회비납부 현황

2020년 12월 31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

시 회비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2009~2020년 특별회비를 출연해 주신 회원님

서상범 전 회장 1,000,000원 (2020)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9)
김규중 교수	2,000,000원 (2019)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9)
최 선 전 회장	1,000,000원 (2019)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이대우 전 회장	1,000,000원 (2019)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9)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8)
이규환 전 회장	2,000,000원 (2017)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7)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2017)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2017)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2016)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2017~2020년 평생회비를 한 번 더 내주신 회원님

문석우(50만 원), 백용식(50만 원), 정경택(50만 원),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서상범(50만 원), 최진희(30만 원)
김진규(50만 원) (이상 10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20년 12월 31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민아,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홍중,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광진,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정영주, 조규연,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7인)

▲ 평생회비 부분납(2020년 12월 31일 현재)

강수경, 길윤미,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태욱,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0인)

▲ 연회비 납부(2020년 12월 31일 현재)

김보라, 권기배, 박미정, 손재은, 정지윤, 이선영, 이승여, 이영준, 임수영, 임혜영, 홍상우

▲ 기관회원 연회비 납부(2020년 12월 31일 현재)

경북대도서관

▶ 2021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21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및 준회원의 입회비는 2만 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과 수료생의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하여 학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박사 학위 취득 시까지 연회비 면제). 평생회비는 3회
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 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 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 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 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계좌번호: 하나은행 864-910211-28107, 예금주: 서광진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41566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311호

TEL: 053) 950-7160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